

세계잼버리대회 농촌 다채로움 선보인다

도, 외국인 대상 농촌마을 초대 한국 고유문화·여가 체험하는 전북형 민박 프로그램 'HoHo 전북' 운영

전북도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농촌의 자연경관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고, 대외교류 역할을 톡톡히 하는 '전북형 농촌민박'을 운영한다.

도는 세계잼버리대회 기간에 해외 스카우트 대원과 일반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농촌마을에 초대해 한국의 고유 문화와 여가를 체험하는 '전북형 민박 프로그램'으로 'HoHo 전북'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도내 숙박, 체험, 식사가 가능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30개 마을을 선정해 외국인 대상 서비스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 마을 운영자 마인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그중 16개 마을은 올해 7억 5,000만원을 투자해 마을내 시설 개보수, 외국인 편의시설 도입,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는 행사기간 전후에 영외활동이 허용되며, 그 기간에 해외 참가자들이 지역에 체류하면서 문화체험과 관광투어를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2019년부터 도내 14개 시·군에 자연경관과 문화와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농촌마을 육성

을 위해 단계별 추진에 주력해왔다.

이와 함께, 지역연계형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일반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전북도 농촌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도시민에게 농촌의 다채로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북도는 'HoHo 전북'에 방문하는 외국인과 도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인프라와 콘텐츠를 강화할 방침이다.

농촌마을의 노후시설 리모델링과 보강공사와 같은 시설 개보수사업 등 외국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자재 지원 등의 HWS사업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지역연계형 농촌체험관광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제체와 교육농장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지역탐방 코스로 개발하는 콘텐츠도 강화한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농촌관광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트렌드로 자리잡았다"며 "이제는 세계잼버리대회를 통해 한국에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을 도내 14개 시·군 농촌마을에서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향후에 전북도를 재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립국악원 '청소년취타대' 창단

스카우트 청소년 24명 선발 · 관악부 · 타악부 구성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염기남)이 전북 스카우트 연맹과 손잡고, 전통음악 계승과 청소년 예술 인재 육성을 위해 '청소년취타대'를 창단한다.

'청소년취타대' 운영을 통해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전북도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기회를 많이 열릴 예정이다.

도는 취타대를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사전홍보와 공연 등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실력을 뽐내 국악 본향 전북의 위상을 높일 마중물로 소개할 구상이다.

취타대 대원은 지난해 말 전북도 스카우트 청소년 중에서 전통을 이해하고 음악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로 24명이 우선 선발돼 관악부, 타악부로 나눠 구성했다.

'취타대'는 주로 조선시대 군대

예식과 왕의 행차 등의 주요 행사에 전송된 행진음악으로, 노랑색과 남색전대, 깃털 꽂은 갓, 양손을 가린 한삼 등 독특한 의상을 갖춰 관악기와 타악기로 연주되던 행진곡풍 군례악의 일종이다.

도립국악원은 지난 4일까지 도내 시·군청, 스카우트 잼버리 지역대 등 유관기관들과 수 차례 회의를 거쳐 인원 구성 등 재반사항을 논의하고 악기 등 필요물품과 장소 마련 등에 분주히 노력해왔다.

향후, 지도교사 채용이 남은 과제로 꼽힌다.

도립국악원은 청소년취타대 대원들을 교육할 지도교사 4명(태평소, 소금, 운라, 장구 전공)을 오는 26일까지 원서접수 후, 3월에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채용된 교사들은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취타대 교육 및 대규모 공연 및 행사 등에 전문가로 활동한다. /유호상 기자

도내 중소기업 대상 환경기술 지원 '호우'

전북도내 중소기업 대상 '환경기술 지원 사업'이 오염물질 저감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지난 200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환경기술지원 사업'은 한번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거나, 사후 정화에 드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큼에 따라, 환경오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오염 최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 환경컨설팅 사업이다.

도는 자금과 기술은 부족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도내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전북도와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환경전문가를 현장에 파견, 무료로 사업장 환경 진단에 대해 지도·지원해 오고 있다.

기술지원은 업체와의 1:1 방문·지원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예비진단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 선정 후, 사업장별 기술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해 맞춤형으로 진행

된다.

특히, 환경분야 신규 인·허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적정처리량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오염방지시설 운영 미숙 등에 따른 환경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기업들이 받는 각종 환경 관련 경영 부담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는 평가이다.

2020년에는 중소기업 24개와 신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허가업체 25개소 등 모두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2021년 환경기술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월말까지 기업의 기술지원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을 완료한 40여개 기업 중에는 폐기물 처리시설과 유기질비료 제조 등 환경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참여가 많아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연휴 마지막 날에도 썰렁한 전주IC'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전주시 상공에서 바라본 전주IC가 원활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다. <촬영협조=전남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비과 항공대 기장 박철희 경관, 부기장 우동식 경위, 승무원 김태현 경위>

새만금 수질개선 적극 나선다

도, 상류 지역 7개 시군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627억원 투입

전북도가 올해 새만금 상류 지역의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에 총 1,627억원을 투입, 새만금 유입 하천인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과 생활하수 악취개선에 나선다.

올해 확보한 하수도시설 분야 국가 예산은 1,044억원으로 지난해 570억원보다 무려 83%(474억원)가 증액되며,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장 확충 등 수질개선 기반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크게 5개 분야 82개소로 ▲하수관로 정비(35개소) ▲공공하수처리장 확충(9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32개소) ▲도시침수 대응사업(2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4개소) 등이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가정이나 상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기 위해 관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전주시 등 7개 시·군 35개소에 942억 원을 투입하며, 2026년까지 총 644.6km를 정비할 계획이다.

공공하수처리장과 농어촌 마을하수도는 하수관로를 통해 모인 하수를 계

통하게 정화하여 하천으로 내보내는 시설로, 올해에는 전주시 등 7개 시·군 41개소에 538억원을 투입해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의 용량을 늘리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하수 정화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해 폐기물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하수처리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를 포집해 제거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활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설치한 지 20년 이상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는 CCTV 등을 이용해 정밀조사,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고, 국비 등을 확보해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익산시 등 4개 시·군에 총 19억원을 투입, 262km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윤동욱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개선은 물론 악취저감 등 생활환경을 개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팽생이모자반 피해 최소화 총력 대응

전북도가 봄철 팽생이모자반 유입에 따른 피해 예방에 나선다.

도는 팽생이모자반이 올해 1월 전남도(신안군) 지역으로 유입된 후, 최근 제주까지 확산됨에 따라 도내 바다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기관과 함께 예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팽생이모자반은 동중국해 연안에서 발생해 바람과 해류를 따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통상 2월부터 5월 사이에 집

중적으로 출현해왔다.

현재까지 전북 연안에는 팽생이모자반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수산기술연구소)는 봄철 계절풍의 영향으로 전북도 연안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면,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매주 1~2회씩 집중적으로 예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 추진

전북도가 안정적 영농활동 기반편을 위해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농업용수 공급능력 확대, 시설물 관리와 영농편의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농업생산기반시설 16개 사업에 2,488억원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주요 정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농작물 침수피해 방지 사업(배수개선, 농지범용화)을 추진한다.

또한, 가뭄이나 물부족으로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는 지역의 농업용수 확보·공급(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재편,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저수지, 용배수로 등 기존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시·군 저수지 정밀조사지원사업과 논과 밭 등에서 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기반편을 통해 농업인의 영농편의 증진을 위한 (경지정리, 발기반정비, 논·밭작물 재배기반 마련)사업 등을 중점 추진 할 계획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와 더불어 눈에서의 재배작물이 다양화 되고 있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가뭄·호우 등 기상재해에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우석대 원광대** **상담**
군산대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 긴장해소 · 리더쉽 · 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누구나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도서관 편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
- 한국스피치 · 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대학교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연수책임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새롭고 멋진 스피치 도우주'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 (주, 야간)	익산, 논산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쉽, 스피치지도사(자격증)	군산, 서원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